

한국정치사상학회 <4월 정기학술회의> 발표문

2023년 4월 15일, 서울대학교

프로메테우스에 맞선 리바이어던:
인간 정념의 대상으로 홉스 주권자의 가능성에 관하여

김지훈(부산대학교)

“인간은 누구나, 특히 남달리 신중한 사람은 프로메테우스- ‘신중한 사람’이란 뜻이다 - 와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된다. 프로메테우스는 광막한 코카서스 언덕에 결박된 채 날마다 독수리 한 마리가 그의 간을 쪼아 먹는다. 밤이 되면 독수리에게 쪼인 만큼의 간이 다시 회복된다. 앞날을 멀리까지 내다보고 걱정하는 인간 역시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된다. 죽음이나 빈곤이나 혹은 이런 저런 재앙의 공포 때문에 잠 시라도 편할 날이 없다. 잠잘 때를 제외하고는.” (『리바이어던』 제12장, 149쪽)

I. 들어가며: 홉스의 지적 여정과 『리바이어던』

잉글랜드 정치철학자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의 정치저작 『시민론』 (*De Cive*, 1642)의 (간과되어 왔던) 한 구절을 인용하며 리처드 턱(Richard Tuck)은 “통치권을 지닌 자가 모든 판단, 협의, 공적 활동에 관여하고자 하는 것은 신이 자연 질서에 반하며 만물을 돌보시는 것과 같은 운영방식”이기에 “주권을 향유하는 입법자는 제도적 형태는 갖추었지만 대부분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논한다 (Tuck 2016, 94, 251-2). 즉 “잠자고 있는 주권자”는 통치(governance)와 관련된 일상적인 문제 모두에 몰두할 필요가 없이 법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될 때에만 스스로 일어나 주권자의 임무를 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턱의 관점과는 상반된 입장에서 아브샤롬 슈워츠(Avshalom Schwartz)는 『리바이어던』에서 세워지는 홉스적 주권자는 그의 신민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밝힌다 (Schwartz 2020, 157). 일견 이는 공포정치를 통해 신민을 숨죽이게끔 한다고 읽힐 수 있지만, 슈워츠의 주장은 신민이 여러 상념에 빠지지 않고 정신적(혹은 심리적으로)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주권자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만 그러한 신민이 흔들리지 않고 지녀야 하는 생각은 ‘주권자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면 된다’는 내·외적 명령이다.

본고는 이러한 두 학자의 해석 갈래를 두고 홉스가 기존 통념에 비해 좀 더 너그럽고 ‘자유주의적’인 주권자를 그려내고자 했는지 혹은 전통적인 해석에 맞춰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주권자를 내세웠는지에 대한 논의에 관점을 더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러한 학적 논쟁에서 조금 벗어나 본고는 위 인용문에 등장하는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프로메테우스를 홉스는 왜 언급하였으며, 또 인간이- 그 대상이 누구이든-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처지에 있다면, 쉬이 잠들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나 ‘리바이어던’ 아래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는지, 또 홉스는 그러한 과정에서 ‘리바이어던’이라는 상징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¹⁾

이러한 본고의 목적은 『리바이어던』 (*Leviathan*, 1651) 서설에서 홉스가 밝히고 있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서설에서 홉스는 “하느님(God)²⁾이 세계를 창조하여 다스리는 기예(art)”를 인간이 모방하면, “하나의 인공동물(artificial animal)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데 이로 인해 “코먼웰스(Commonwealth) 혹은 국가(State), 라틴어로는 키위타스(Civitas)라고 불리는 저 위대한 리바이어던(Leviatha)이 창조”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공 인간의 성질을 서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고 이어지는 자신의 논의를 소개하는데, 그 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문제가 바로 ‘인간’이다. 여기에서 홉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격언을 ‘너 자신을 연구하라’라는 말로 치환하며, 이 “격언이 가르치는 바는 사람의 사고와 정념은 누구나 서로 비슷하다는 것”이라고 정리한다. (『리바이어던』 서설, 21-24쪽)

이어서 홉스는 자신이 인간을 탐구하는 방향과 방법을 소개한다. 자기 자신을 내적으로 관찰하며 “언제 ‘사고하고, 판단하고, 추론하고, 희망을 품고, 공포를 느끼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곧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고와 정념을 가지게 될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제시한 이후 홉스는 자신의 관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한다. “내 말은 ‘정념’의 유사성, 즉 ‘욕망’과 ‘공포’와 ‘희망’ 등의 정념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지, 그 정념의 ‘대상’의 유사성, 즉 욕망과 공포와 희망 등의 대상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이다. 즉, 홉스는 스스로를 면밀히 관찰하면 발견할 수 있는 정념이라는 요소가 인간 모두에게도 동등하게 발견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 정념이 향하는 대상은 인간들 사이에서 다를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리바이어던』 서설, 21-24쪽)

이러한 설명에 이어 홉스는 통치자의 의무 혹은 역할을 정의한다. “전 국민을 통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어느 특정인의 마음을 읽을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그 어떤 언어나 학문을 배우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리바이어던』 서설, 21-24쪽) 홉스의 말처럼 전 인류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 일이 그토록 어렵다면, 주권자는 인간들 사이에서 정념이 향하는 대상을 두루 살피는 것보다는 스스로가 정념의 대상이 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본고는 홉스가 내세운 ‘리바이어던’이 바로 그 정념이 대상이었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렇다면 홉스가 나열한 정념인 욕망, 공포, 희망 중 홉스적 주권자인 ‘리바

1) 본고의 관점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홉스의 은유에 주목하며 해당 은유를 통해 나타나는 주권자와 신민 간 관계에 주목한 연구와 관련해서는 김태진(2017)을 참고해 볼 수 있다.

2) God의 번역어를 두고 본고에서는 홉스의 저작을 인용하는 경우 옮긴이의 견해에 따라 ‘하느님’을 그대로 따르나, 직접 인용 없이 본고의 논의를 개진하는 경우에는 ‘신’으로 적어두고자 한다. 이는 홉스가 견지했던 종교적 관점이 여전히 논쟁적인 점을 고려한 것인 한편(Martinich 1992, 34), 『리바이어던』 후반부에 논의되는 ‘신’은 어떠한 특정 종교적 색채를 배제하고자 홉스가 노력했다는 본고의 논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어던'은 어떠한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안겨주며 빛을 선사했지만, 인간은 그렇게 확장된 시야로 인해 다가오는, 하지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떨며 세월을 보내게 되는 모순적인 결과를 안겨다 주었다. 주지하듯 홉스는 공포의 대상으로 '리바이어던'을 내세웠다. 홉스는 이로 인해 프로메테우스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했던 것이 아닐까?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본고는 『리바이어던』 저작 자체의 구성 순서에 따라 홉스의 자연과학(2장), 정치학(3장), 그리고 신학(4장)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홉스의 논리 전개가 그의 지적 여정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설립된 '리바이어던'이 프로메테우스에 맞서 인간 정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볼 것이다.

홉스는 잉글랜드 내전 시기 정적(政敵)의 박해로부터 벗어나 있기 위해 1640년 프랑스 파리로 망명을 떠났다 (Hobbes 1840, 414). 그리고 프랑스에 머문 1640년대에 주로 물리학, 형이상학, 그리고 신학적 탐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정치적 문제로 관심이 돌아선 것은 1640년대 후반이 되어서라고 알려져있다 (Malcolm 1996, 29). (역사적) 저술 시기를 토대로 하여 저자의 저술 의도를 명확히 밝혀내려고 하는 연구방법론은 여전히 논쟁적이지만,³⁾ 『리바이어던』 저작 자체에 대한 홉스의 직접적인 언급은 1650년 5월 편지에 적혀있고 실질적인 집필을 한 시기는 1649년 겨울부터 출판된 1651년 사이라고 밝혀져 있어 그의 학적 관심이 어느 정도 시기를 거쳐 이동했다고 보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듯하다 (Malcolm 2012, 1; Schuhmann 2004, 17)⁴⁾

홉스 연구 방법을 두고 또 하나 논쟁적인 부분은 『리바이어던』(1651)이 홉스가 저술한 세 번째 정치저작이라는 점이다. 『리바이어던』 이전에 저술한 다른 정치적 저작들인 『법의 원리』 (*The Elements of Law*, 1640), 『시민론』(1642)에서 홉스가 중점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에 따라 각 저작 간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Baumgold 2017, 127-140).⁵⁾ 일부는 자연상태, 자연법, 절대적 주권 개념 등 홉스 정치 이론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원칙으로 여겨지는 내용은 이미 1630년대에 완성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Collins 2005, 7). 하지만 이전 저작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이 무엇이 되었든 재판(reprint)이 아닌 새로운 저작을 출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며, 본고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홉스의

3) 20세기 중후반 정치적 저작 특히 정치철학서로 알려진 저작의 해석 방향성을 두고 여전히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소위 텍스트주의자로 알려진 레오 스트라우스(Leo Strauss)와 컨텍스트주의자로 알려진 켄틴 스킨너(Quentin Skinner) 간 논쟁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정치사상 방법론은 물론 정치철학자, 정치사상가, 혹은 정치사상 연구자 자체의 역할을 두고 여러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하여 정치사상 연구 방법 일반과 관련 최근 국내에서의 관심 역시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홍태영(2017), 안두환(2022), 김민혁(2023)을 참고). 관련하여 홉스 연구 관련하여서는 Burgess(1990)를 참고해 볼 수 있다.

4) 이전 주석(3)에서 논의했듯 해당 저술 시기 이전에 『리바이어던』에 담길 여러 생각들은 이미 이전에 확립 및 발전되어 왔다는 점 또한 지적된다 (Malcolm 2012, 11).

5) 『법의 원리』는 잉글랜드 내전 개전 2년 전인 1640년에 쓰여졌고, 『리바이어던』은 찰스 1세가 처형당한 1649년 이후 2년 뒤에 출판되었다.

(본격적인) 정치철학 혹은 정치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리바이어던』에 좀 더 집중해서 독해할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Sorrell 2004, 1-2).

또한 4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 『리바이어던』은 이전 정치저작과는 달리 책의 절반을 종교적 논의에 할애하고 있다. 물론 『리바이어던』 저작 자체를 당시 잉글랜드 내전 상황의 변화, 즉 찰스 1세(Charles I)를 중심으로 한 왕당파와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을 중심으로 하는 의회파 간 권력 관계 변화에 따른 정치적 이념 논쟁 차원에서 독해할 수 있는 가능성(Patterson-Tutschka 2015) 자체를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이와 관련해서는 본고의 3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에 앞서 우선 2장에서는 홉스 지적 여정의 출발점이자 『리바이어던』을 시작하며 작성한 홉스 (정치)철학의 기본 전제들을 살펴볼 것이다.

II. ‘감각’과 ‘상상’: 인식론적 전환기 홉스의 관심사

『리바이어던』 첫 두 장의 제목은 각각 “감각(Sense)에 대하여”와 “상상(Imagination)에 대하여”이다. 홉스는 당대 학문의 주류를 형성하던 스콜라 학파가 “상상이 무엇인지, 감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배운대로 가르치고” 있는데, 이는 이들 “현자”에게 부여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이란 바로 신의 이름을 빌려 사적 이익 혹은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악인”에 맞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일이다. 홉스에 따르면,

“악인들은 제 스스로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느님의 전능을 내세워 무슨 주장이든 서슴없이 한다. 현자의 역할은 그런 주장들에 대해 올바른 이성적 판단을 내리고, 신뢰할 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은 거부하는 일이다. 이러한 미신적인 정령 공포가 사라지고 나면, 그와 함께 해몽이나 거짓 예언 따위의, 교활한 야심가들이 순박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할 때 부리는 많은 술수들이 사라지고 나면,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정치적 복종을 잘하게 될 것이다.” (리바이어던 제2장, 38-9쪽)

즉, 홉스는 종교인들이 내세우는 미신을 물리쳐 정치적 권위자에 대한 위상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스콜라 학자를 위시한) 현자가 감각이 무엇이고 상상이 무엇인지 명확히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홉스의 관심은 당대 주류 스콜라 학파가 받아들이던 - 그래서 『리바이어던』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soul) 논의를 두고 이뤄지던 (자연)철학적 논쟁과 무관하지 않다.⁶⁾ 그리고 이는

6) 제5차 라테라노 공의회(The Fifth Lateran Council, 1512-1517)에서는 철학자들에게 신앙(faith)뿐만 아니라 이성의 빛(light of reason)에 기초하여 영혼의 불멸성(immortality of soul)을 입증하라고 명령했다. 교회로부터 제기된 이러한 요구는 근대 초기 내내 악명을 떨쳤던 이탈리아 르네상스 철학자 피에트로 폼포나치(Pietro Pomponazzi, 1462-1525)에 의해 명확히 거부되었다. 폼포나치는 『영혼 불멸에 관한 논문』(*Treatise on the Immortality of the Soul*, 1516)에서 전통 신학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신앙으로 인해 알려진 교리는 이성의 결론을 능가하기에 영혼 불멸성에 관한 논변은

‘인간의 인식은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형성되는가’라는 문제와 맞닿아 있었다. 만약 인간의 인식이 자연 혹은 외부적 대상이 전달하는 정보를 그대로 전해 받는다면, 인간은 여타 자연적 물질(natural material)과 구분될 수 없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인간 내부적으로 외부적 대상에 대한 인지나 해석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밝혀져야 했다 (McCracken 1998; Simmons 1999).

이러한 논쟁이 벌어지고 계속되었던 이유는 당시 ‘이성적 영혼(rational soul)을 지니고 있는 존재가 곧 인간’이라는 명제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의 스콜라 철학자 루돌프 고클레니우스는 이 문제를 두고 인간의 본질은 곧 영혼이라고 주장하는 ‘플라톤주의자’와 영혼은 인간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아리스토텔리안’이 구분된다고 정리하기도 했다. (Goclenius 1613: 105). 어떠한 견해를 따르든 이성적 영혼이 비물질적(immateral)이라는 관점을 부정하는 부류는 당대 흔치 않았다. 물질(matter)은 사물을 지각하거나 개별자로부터 전체를 사고하는 추상화 과정을 추동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성적 영혼의 비물질성은 곧 그것의 불멸성을 보증하는 가장 강력한 주장이 되었다. (Eustachius 1998: 85)

해당 논의의 연장선 상에서 이후 전면에 부각되었던 인물은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였다. 잘 알려진 것처럼 데카르트는 영혼을 신체와 구분해 생각했다. 데카르트의 논의에 따르면, 신체는 “신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의 기계”인 반면, 영혼은 “물질의 잠재성으로부터는 어떤 방식으로든 파생될 수 없기에 특별히 창조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이성적인 부분을 형성하는 인간의 영혼은 이전까지는 동물과 공유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유기적이고 감각적인 부분과는 별개의 것으로 여겨진다 (Descartes 1637, 134-141). 이러한 데카르트의 주장을 두고 잉글랜드 카톨릭이자 망명자였던 케넬름 디비(Kenelm Digby, 1603-65)로, 그는 데카르트에 대해 “알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 무지한 우리에게 어떠한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고 칭송했다 (Digby 1644: 275). 그리고 관련하여 디비 저술한 『두 논문』(*Two Treatises*)은 1644년 파리에서 출판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영어와 라틴어로 재출판되었다.

이러한 논쟁이 열띤게 이뤄지고 있던 1640년대에 파리에 망명해 있던 홉스가 어떠한 관점을 취했고, 또 이후 정치저작을 기술할 때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두고 많은 연구가 이뤄져 왔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홉스가 『리바이어던』까지 이어진 일련의 정치저작을 쓴 이유를 자연철학적 설명을 밑바탕에 두고 도덕이론과 정치이론을 기술하고자 했던 총체적인 철학적 체계를 구축하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Johnston 1986, xv; Martinich 1992; Dungey 2008). 나아가 일부 학자들은 홉스의 정치철학은 자연철학으로부터 이끌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하며 (Ryan 1970:

“자연적 이성”에 의해 보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Pomponazzi 1948: 321, 379) 여기에 대한 반박으로 교황청에서는 “기독교인은 합리적인 영혼이 영적이고 불멸하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했다. (Eustachius 1998, 89). 물론 영혼에 대한 탐구 자체가 자연철학 연구에 적합한지 여부도 논쟁의 대상이었다. 예를 들어, 1596년에 처음 출판된 장 보댕(Jean Bodin, 1530-96)의 『보편적 자연 극장』(*Theatre of Universal Nature*)에서 등장하는 대담자는 인간의 영혼이 “자연에 속하는지”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영혼에 대한 설명을 시작한다 (Bodin 1605: 431-2).

Spragens 1973; Goldsmith 1966), 두 영역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어왔다 (Warrender 1957). 최근에는 이러한 논쟁에서 조금 벗어나 정치(철학)적 저서의 수사학적 측면에 주목해 당대 주류 논쟁을 다룬 이유는 해당 논의에 어떠한 추가적인 논의를 보충하기보다는 열띤 논의에 “찬물을 뿌려” 흠스가 생각하는 좀 더 긴박한 논의로 관심을 돌리고자 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Stauffer 2016). 이러한 해석의 갈래 중에서 본고는 흠스가 인간의 지적 능력과 이들로 구성되는 정치사회의 안정성 모두에 관심을 가졌으며, 그 중심에는 상상(imagination)이라는 개념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관점을 견지하고자 한다.⁷⁾

흠스는 데카르트의 설명 방식이 정치철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했다. 특히나 신의 개념(idea of God)을 명증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데카르트의 논변에 대해 흠스는 철저히 부정했다.⁸⁾ 인간은 신이라는 심상(image)을 그려볼 수는 있지만, 신을 지각하지 않는 한 그 개념 자체를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흠스는 장님이 ‘불’을 통해 온기를 느낄 수 있고 이것의 원인이 불이라는 점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님이 아닌 사람처럼 불 자체를 지각하여 그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는 없다고 논한다.

“영원한 유일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고서는 자연적 원인에 대한 어떠한 심오한 탐구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신의 본성과 합치하는 신의 관념을 그려낼 수는 없다. 그 이유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이, 불로 온기를 얻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직접 불을 쬐어 온기를 느낀 경험이 있다면, 사람들이 ‘불’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그가 느낀 온기의 원인이 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한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불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인지는 상상할 수 없으며, 불을 직접 본 사람처럼 마음속에 그려낼 수는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보이는 온갖 사물과 경이로운 질서를 보면서 그 원인을, 즉 사람들이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것의 존재를 생각할 수는 있지만, 마음속에 신에 대한 관념 혹은 상(像)을 그려낼 수는 없다.” (『리바이어던』 제11장, 146쪽)

왜 흠스는 우리가 신에 대한 관념 혹은 상을 그려낼 수 없다고 여겼을까? 흠스는 인간의 사고(thoughts)는 감각(sense)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말하며, “감각을 일으키는 대상 그 자체”와 감각을 구분한다. 거울로부터 시각적으로 어떠한 대상을 인지하거나 메아리를 통해 청각적으로 어떠한 현상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빛깔과 소리

7) 이와는 달리 흠스의 자연철학적 관심이 주로 ‘운동’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관점도 참고해 볼만하다 (이규성·박영란 2020, 176-177).

8) 흠스가 데카르트와의 논쟁 이전에 자신이 저작을 통해 풀어놓은 동일한 관점을 지녔는지 아니었는지를 두고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Tuck 1988). 두 사람은 직접적으로 교제한 것은 아니지만 프랑스 철학자였던 마랭 메르센(Marin Mersenne)을 통해 교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Mori 2012). 1641년 데카르트가 『성찰』(Meditations)을 출판했을 때 총 6개의 반박을 받았고 그 중 흠스는 세 번째 반박문을 작성했다. 흠스가 『법의 원리』를 작성했던 시기는 1640년이었다.

는 그 대상과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리바이어던』 제1장, 27-28쪽). 그리고 한 번 시작된 운동은 계속해서 이어지며, 이는 “인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운동의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 “즉 대상이 사라지거나 눈을 감거나 한 후에도 보던 물체의 상이, 실제로 보고 있을 때보다는 흐리지만, 여전히 남아있다.” 이를 두고 흙스는 상상(imagination)이라 붙이며, 이는 곧 “쇠퇴하는 감각”(decaying sense)이라고 정의한다. (리바이어던 제2장, 32쪽)

흙스는 이러한 쇠퇴하는 감각인 상상은 꿈 속에서도 이어지는데, 이러한 상상은 (데카르트의 논변과는 달리) 생각보다 강렬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인간은 실제인 현실과 공상인 꿈을 구별하지 못한다. “잠자는 동안에는 인체 내부의 감각 기관들의 자극에 의해 생기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상상도, 즉 꿈도 생길 수가 없”는데 이때 “더욱 강렬한 인상으로 그 꿈속의 심상을 압도하거나 흐리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상이 없”기에 “꿈은 우리가 생시에 하는 생각 이상으로 선명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감각과 꿈을 엄밀하게 구별하기가 어려우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생시와 꿈을 구별할 수 없다고 한다.” (『리바이어던』 제2장, 35쪽)

그럼 인간이 꿈에서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흙스는 두 방법을 제시한다. 바로 지각할 다른 대상이 나타나서 앞의 심상을 흐리게 하거나, 꿈에서 보았던 심상에 대한 기억이 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어떤 대상물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진 후 그 인상이 남아 있어도 곧 다른 대상이 나타나 시각에 작용하면 앞의 심상은 흐려지고 약해진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어떤 대상을 보거나 혹은 감각하고 난 후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심상은 그만큼 약해진다는 것이다.” (『리바이어던』 제2장, 33쪽). 흙스에 따르면 인간이 그릇된 정보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시간이 해결해주기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흙스는 생각보다 이는 간단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바로 이전에 눈앞에 나타난 인상이 아주 강렬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벗어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꿈과 생시를 구별하기 가장 어려운 때는 어떤 이유로 자기가 잠을 잤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이다.... 이런 일은 결코 드물지 않다. 소심하고 미신적인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에 흘린 상태에서 어둠 속에 홀로 있으면, 완전히 깨어있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환각에 빠지기 쉽다” (『리바이어던』 제2장, 36-7쪽). 만약 흙스가 스콜라 학자들이 응당 해야했던 학자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여겼다면, 『리바이어던』의 이어지는 장들에서는 흙스가 깨우고자 했던 사람들이 흘린 ‘무서운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논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Ⅲ. 흙스의 (모순적인) 이중 전략: ‘이성의 원칙’ 발견과 <성경>의 해석 문제

기존 연구에서는 흙스가 『리바이어던』을 작성하며 처음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인 ‘상상(imagination)’이라는 요소가 주권자의 권위는 물론 국가의 질서 및 안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초래한다고 흙스가 보았고, 따라서 흙스는 자신의 저작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루고자 했다고 지적해왔다 (Schwartz 2020; Hoekstra 2004, 140;

Lloyd 1992, 244; Johnston 1986, 99-103). 관련하여 레이젠호르스트(Leijenhorst)와 더글러스(Douglass)는 홉스가 전개한 인식론 및 자연과학적 논의를 정치적 안정을 목적으로 삼았던 홉스 정치이론과 연결하고자 시도했으며, 나아가 감각적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상상으로 인해 야기되는 정치적 불안정성을 홉스가 중대하게 여겼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Leijenhorst 2007; Douglass 2014). 특히 더글러스는 홉스가 시도했던 정치적 과제에서 핵심을 이뤘던 부분은 한편으로는 바로 스콜라 철학자를 비롯한 야심찬 종교 지도자들이 양산한 여러 부조리하고 선동적인 이미지로부터 동시대인들이 품게될 상상력을 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아가 이러한 이미지를 정치적 질서와 안정을 가져올 이미지로 치환하는 데 있었다고 논한다 (Douglass 2014, 134-9).

기존 논의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홉스의 해결책을 두고는 보통 (시민)교육의 역할에 주목해왔다 (Bejan 2010; 2018). 실제로 홉스는 2부의 결론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제30장인 “주권을 지닌 대표자의 직무에 대하여”에서 나열한 주권자의 직무 중 거의 절반 가량을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적시해 두었다. 그리고 이어서 3부의 42장이자 『리바이어던』 내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는 장인 “교권(教勸)에 대하여”에서 홉스는 “이교도들의 코먼웰스에서는 주권자를 인민의 목자라고 불렀다. 주권자의 허가와 권한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인민들을 합법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밝힌다.⁹⁾ (『리바이어던』 제42장, 232쪽) 하지만 슈워츠(Schwartz)는 상상이라는 요소를 통해 제기되는 “문제가 상당히 끈적(sticky)하기에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 완전히 제거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어떠한 교육이나 명령을 통해서 주권자가 전하는 메시지만으로는 시민이 상상하고 기억하는 공간 속에서 선명하고 생생하게 남지 못해, 종교 지도자, 예언자, 그리고 여타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개인이 국가권력에 맞서 선동하고자 하는 시도를 막아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슈워츠는 홉스가 주권자로 하여금 신민들이 되도록 “잠든 상태”에 오래 있도록 하여 주권자가 전한 이미지가 그대로 선명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몰두해야함을 주장했으며, 홉스의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사회 내 엄격한 검열이 필요함을 내세웠다고 주장한다 (Schwartz 2020, 157).

이러한 논의를 염두에 두고 『리바이어던』을 2부의 마지막을 살펴보면 홉스가 『리바이어던』 전반부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비교적 명확하다. 바로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코먼웰스”, 즉 정치공동체가 수립될 수 있는 “이성의 원칙”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오랜 세월동안 인간이 설립한 코먼웰스들이 불안정하고 혼란에 빠져들기 쉬웠다 하더라도, 근면한 성찰을 하는 자에게는, (외부의 폭력이 없는 한) 항구적인 구조를 지닌 코먼웰스를 설립할 수 있는 이성의 원칙들이 발견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내가 이

9) 그리고 그러한 이교도 왕이 “기독교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백성을 이끄는 최고 목사요, 교회를 이끌 목사들을 임명하고, 그들에게 신도들을 가르칠 책무를 부과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리바이어던』 제42장, 232쪽)

글에서 제시한 것이 바로 그러한 원칙들이다.” (『리바이어던』 제30장, 433쪽)

이러한 원칙을 제시하기 위한 홉스의 논의 과정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우선 홉스는 자연상태(state of nature)를 (가상적으로) 그리고, 그 상태에 놓인 인간의 행위 양태를 설명한다. 홉스에 따르면, 자연은 인간을 서로가 평등한 상태에 놓이도록 만들었고,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한정된 자원 내에서 자기보존(self-preservation)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추구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경쟁, 즉 투쟁의 상태를 직면한다. “자연은 인간이 육체적·정신적 능력의 측면에서 평등하도록 창조했다.” (『리바이어던』 제13장, 168쪽) 그리고 이러한 “능력의 평등에서 희망의 평등이 생긴다. 즉 누구든지 동일한 수준의 기대와 희망을 품고서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같은 것을 놓고 두 사람이 서로 가지려 한다면, 그 둘은 서로 적이 되고, 따라서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굴복시키려 하게 된다. 파괴와 정복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경쟁의 주된 목적은 자기보존이다.” (『리바이어던』 제1부, 제13장, 169)

홉스는 자연상태에서는 분쟁을 억제하거나 의견충돌을 중재해 줄 공통의 권력자 혹은 재판관이 부재하기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분명해진다”고 밝힌다. “즉 인간은 그들 모두를 위압하는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전쟁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 전쟁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이다.” (『리바이어던』, 제13장, 171) 이렇게 홉스가 그리는 전쟁과 같은 자연상태의 모습은 경험적 증거가 부족하기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할 이들을 위해 홉스는 본고의 서론에서 지적한대로 스스로의 행동 방식을 되돌아볼 것¹⁰⁾, 그리고 독자가 알고 있을 법한 역사적 사실을 되짚어 볼 것¹¹⁾을 촉구한다.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했듯 이처럼 홉스가 상정하는 자연상태는 일종의 교육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때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폭력적인 죽음(violent death)에 대한 두려움 양산이라 할 수 있다(Strauss 1952, 19; Ahrens Dorf 2000). 다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폭력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이를 막아줄 ‘리바이어던’이 세워질 수 있고 이에 대한 복종이 요구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홉스는 잉글랜드 내전이 사람들에게 안겨준 교훈은 바로 무정부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통일된 주권을 세우는 것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기대를 품고 있었음에도 『리바이어던』을 저술할 때까지 홉스는 폭력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두려움 혹은 희망보다 시민들에게 더 강한 잔상을 남기기 어렵다고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홉스는 “어둠과 유령에 대한 공포가 다른 공포들보다 더 크기 때문에”라고 털어놓기도 하며, “인간은 명예와 지위를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기도 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10) “경험적 증거를 제시해 보겠다. 우선 나의 추론에 대해 의심을 품는 그 사람 자신의 행동을 살펴보기로 하자. 여행갈 때는 무장하고, 여러 사람과 같이 가려고 한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문단속을 한다. 집에 있을 때에도 금고 문을 단단히 잠가 둔다.” (『리바이어던』 제13장, 172)

11) “두려워할 만한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인간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은 평화로운 국가 생활을 하다가 내란에 빠져들곤 했던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으로도 족할 것이다.” (『리바이어던』 제1부, 제13장, 173)

(『리바이어던』, 제29장, 424쪽; 제17장, 230쪽). (Ahrens Dorf 2000, 581-82; Cooper 2013, 46-63). 그리고 이러한 홉스의 염려는 그가 느꼈던 자국 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조금씩 더 커져갔던 것으로 보인다.

파리로 망명을 떠난 홉스는 이전 장에서 살펴보았듯 논리학, 기하학, 자연과학, 형이상학에 주목했으며, 이에 따라 『물체론』(*De Corpore*), 『인간론』(*De Homine*),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론』(*De Cive*)을 완성 및 출간하고자 계획했다. 하지만 홉스는 돌연 『시민론』을 먼저 마무리 짓고 1642년 출간(1647년 재출간)했고, 이어 『리바이어던』 저술에 몰두했다. 그리고 두 저작에서 홉스는 이전 저작과는 달리 종교적 문제와 특히 성서 해석의 문제에 대해 좀 더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Johnston 1986, 115). 이러한 변화를 두고 포콕(John G. A. Pocock)은 “홉스의 종말론(eschatology)에 대한 관심이 1642년과 1651년 사이에 증대되었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일반적으로 종말론적 사고가 이뤄지지 않았던 환경인 파리에서 거주하는 동안 나타난 것이며” 이는 다소 의아한 현상이라는 의견을 내비치며, 이는 “개인적 영감과 시민적 주권자의 권위 간 충돌이라는 주제가 정치적 논쟁의 핵심”이 되었기 때문이라 말했다(Pocock 1970, 173, 180). 모든 정치권력은 신으로부터 나왔고 어떤 의미에서 신의 권리에 의해 유지된다는 명제는 17세기 전반기 잉글랜드 사회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포콕의 지적처럼, 이러한 정치권력이 누구에게 처음으로 내려졌고 또 누가 선점할 수 있는지는 주요 정치적 논쟁점이었다 (Sommerville 1996, 187-8). 그리고 이러한 논쟁의 중심에는 누가 신의 명령을 해석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하느님의 율법과 인간의 율법이 상반될 경우, 하느님과 인간에게 동시에 복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아직도 충분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독교 코먼웰스에서 발생한 소요와 내란은 거의 대부분 이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두 가지 상반된 명령을 받았을 때, 하느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아무리 합법적인 주권자(군주이든, 주권적 합의체이든)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혹은 아버지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하느님의 명령보다 앞설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하느님의 명령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리바이어던』 제43장, 284쪽)

1625년 잉글랜드의 왕으로 즉위한 찰스 1세(Charles I, 재위 1625-1649)¹²⁾는 1629년부터 11여 년간 의회를 배제하고 국가를 통치했는데, 국왕과 의회와의 갈등은 1640년대 초에 이르러 더욱 심화되었다. 찰스 1세는 자신이 내세운 감독 중심의 교리에 맞선 스코틀랜드의 청교도(Puritans)¹³⁾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전비 마련

12) 1603년 엘리자베스 1세(Elizabeth I, 재위 1558-1603)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스코틀랜드의 국왕 제임스 6세(James VI, 1603-1625)는 영국 왕 제임스 1세가 되었다. 그리고 1625년 제임스의 사망으로 그의 아들 찰스 1세(Charles I, 1625-1649)가 왕위에 올랐다.

13) 영국의 헨리 8세(Henry VIII, 재위 1509-1547)는 1534년 수장령(Acts of Supremacy) 선포와 함께 가톨릭과 결별하고 영국 국교회를 설립했다. 그리고 이후 가톨릭의 복원을 위해 개신교도들을 박해했

을 위해 1640년 약 2개월간 의회를 소집하였지만 의회는 이를 거부했다. 그리고 약 2년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측 간 협상의 결렬로 인해 1642년 여름,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와 의회를 후원하는 의회파 간의 무력 대치가 시작되었다. 이 무력충돌은 1648년 말 왕당파의 패배와 1649년 1월 국왕의 처형으로 일단락되었다 (Holmes 2006). 그런데 국왕 처형이라는 전대미문의 결정이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정치적 혹은 종교적 논리 및 담론이 뒷받침되어야만 했다 (Burgess 2004, 220; Morrill and Baker, 2001). 이러한 가운데 내전 종식 이후 의회파 군대 내부에서는 “신의 뜻을 알기” 위한 군의 대회(General Council of Army)가 런던의 화이트홀(Whitehall)에서 열렸다 (Polizzotto 2016, 35)

상기 흡스의 문장을 인용했듯 1648년 12월 29일에 열린 이 회의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잉글랜드의 미래와 국왕의 처형 문제를 두고 여성 예언자(prophet)인 엘리자베스 풀(Elizabeth Poole)을 불러 조언을 구했다는 것이다. 당시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의 사위였던 헨리 아이러튼(Henry Ireton)은 풀이 설명한 예언적 환상을 두고 “신의 영”의 역사의 결과라고 평하며, 이를 기반으로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처리하자고” 종용했다 (Mortimer 2017). 하지만 토마스 해리슨(Thomas Harrison) 대령은 풀에게 더 구체적인 예언의 내용과 그 증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풀의 예언이 상징적이었던 반면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Farr 2014). 당시 풀은 더 상세한 계시를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으나, 이후에 다시 소집된 회의에서는 왕의 처형에 반대한다는 표현을 ‘원수를 갚는 것은 신에게 있다’는 성경의 내용을 지목하며 말했다. 이번에도 참석자들은 풀의 예언에 대한 증거를 계속해서 요구했으며, 이것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왕의 처형을 그대로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Polizzotto 2016, 53-59).

이러한 정치적 상황과 내려진 판단을 염두에 두고 『리바이어던』 헌사를 다시 본다면, 자칫 전체 저작의 논의를 위한 보충적 성격으로 고려될 수 있는 『리바이어던』 3부(“기독교 코먼웰스에 대하여”)와 4부(“어둠의 나라에 대하여”)의 내용이 생각보다 더 논쟁적이며 당대인들의 이목(과 반감)을 끌어냈을 것이라 여겨진다.¹⁴⁾

“이 저술에서 다른 사람의 노여움을 살 만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성경>의 몇 구절을, 보통 다른 사람들이 인용하는 경우와는 다른 목적과 주장을 위해 인용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최대한 겸허하게 그렇게 했으며, 이 저술의 목적상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敵)이 이 구절들을 보루로 삼고서 시민적 권력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바이어던』 헌사, 11쪽)

던 메리(Mary, 재위 1553-1558) 사후 왕위에 오른 엘리자베스 1세(Elizabeth I, 재위 1558-1603)의 중용 정책이 개신교도들의 저항에 직면했을 때 1564년 매튜 파커(Matthew Parker, 1504-1575)는 엘리자베스에 올린 보고서에서 최초로 저항자들을 청교도(Puritans)로 호칭하였다 (Porter 1970, 3) 이후 ‘청교도(Puritan)’라는 단어는 영국국교회 내부에 존재하던 개신교도 일반을 가리키게 되었다.

14) 파킨(Parkin)은 “흡스의 사상과 그의 짐짓 진지해보이는 신학 간 긴장관계는 오늘날만큼 당시에도 그의 독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고 지적했다 (Parkin 2010, 93).

홉스는 자신이 두려워했던 적이 공격하던 시민적 권력을 지켜내기 위해 사람들의 노여움을 살만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그가 당대에도 또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훌륭한 수사학자(rhetorician)이었다면, 그의 전략(tactic)은 논쟁이 열기에 “찬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홉스 스스로도 자신의 정치저작이 다른 주제를 다루는 저작들에 비해 사람들로 부터 호의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¹⁵⁾ 또한 전장에서 다뤘듯 만약 홉스가 종교적 권위자로부터 세속적 권위자로 사람들의 이목과 ‘심상’을 옮기고자 했다면, 그래서 신민이 꿈을 꾸며 상상하는 대상을 교체하고자 했다면, 홉스는 3부와 4부를 기술하지 않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왜 홉스는 이러한 일견 유용해보이지 않는 전략을 펼쳤는지에 대해 고민해 볼 것이다.

IV. 예언자와 리바이어던: ‘신중한 사람’에게 명증성을 안겨줄 주체에 관하여

화이트 홀의 회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예언(prophecy)의 문제를 다루던 시기에 ‘신중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힘은 수사학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예상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사람들을 (여전히) 휘어잡았고, 초월자인 신의 이름으로 이를 ‘명증’하게 보여줄 대상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좌우되었다. 홉스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이러한 힘을 아는 자들로 인해 여러 종교가 나타나는데, 종교인들 중 일부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견할 수 있다고 밝히며 사람들을 통치하려 들고 자신의 권력을 증대시키려 한다고 주장한다.

“사물의 자연적 원인에 대한 탐구를 거의 또는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롭게 혹은 해롭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러한 무지에서 생기는 공포로 인하여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힘을 상정하고 이를 원인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상상력으로 신을 만들어낸다. 그리하여 무수히 다양한 상상으로부터 인간은 이 세상에 무수한 종류의 신을 창조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러한 공포야말로 각자가 종교라고 부르는 것의 씨앗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종교의 씨앗을 보관해 왔으며, 그들 중 일부는... 그 위에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의 원인에 관해 자신들이 만들어낸 의견을 덧붙이고자 하였는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을 가장 잘 통치할 수 있고, 나아가 자기의 힘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리바이어던』 제 11장, 147쪽)

화이트 홀에 등장한 풀에게 요청했던 일군의 사람들처럼 홉스는 “어떤 사람이 하느님이 자기에게 초자연적으로 직접 말했다고 주장하고, 내가 그것을 의심한다

15) 국가라는 “인공 물체에 대한 내 학설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도 자연 물체에 대한 새로운 학설에는 기뻐할 것이다. 어느 누구의 이익에도 반하지 않고, 그 어떠한 즐거움도 해치지 않는 진리는 모든 사람들이 환영할 것이기 때문이다” (『리바이어던』 재검토 및 결론, 438쪽)

고 할 때, 나로 하여금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 그가 어떤 증거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묻는다. 그리고 풀의 두 번째 대답에 상응하는 관점을 내세운다. 풀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성경>에 그렇게 적혀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느님을 말을 직접 들었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이다. (『리바이어던』 제32장, 25쪽).

이어서 홉스는 “참 예언자를 알아볼 수 있는 두 가지 징표”를 제시하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야 한다”고 말한다. 그 중 “하나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미 설립된 종교 이외의 어떤 종교도 가르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힌다. 그런데 홉스에 따르면, “오늘날에는 더 이상 기적이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계시나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징표가 없다”고 지적한다. (『리바이어던』 제32장, 27-30쪽). 따라서 참 예언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오늘날 우리가 복종해야 할 대상은 오직 주권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홉스는 계속해서 신중하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를 자처하는 사람의 말은 극히 조심해서 들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충고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행복이 길이 무엇인지 설교하면서, 자신의 설교를 따르는 것이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람들에게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통치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배하고 군림하겠다는 것이다. 남을 지배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야심으로 거짓으로 하느님을 내세우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의 말에 따르기 전에, 각자 잘 살펴보고 시험해봐야 한다.” (『리바이어던』 제36장, 99-100쪽)

홉스가 이렇게 자신의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전 ‘이성에 따른 논의’에서 이미 “‘궁극목적’(finis ultimus)이나 ‘최고선’(summum bonum) 따위는” 없다고 하며,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리바이어던』 제11장, 137쪽) 홉스의 논의 속에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목적은 ‘잔혹한 죽음’으로부터의 회피, 즉 생명 보존뿐이다. 그렇지 않고 만약 “주권자 이외의 누군가가 생명보다 더 큰 보상을 줄 수 있고, 죽음보다 더 큰 처벌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곳에서는 코먼웰스가 존립할 수 없다.” 그런데 홉스는 돌연 “영원한 생명’(eternal life)은 ‘현세의 생명’보다 더 큰 보상이며, ‘영원한 고통’(eternal torment)은 ‘현세에서의 죽음’보다 더 큰 형벌이다”라는 말을 하며, 세속적 주권자의 권세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차원의 논의를 제기한다. 그리고 나서 곧 “<성경>에서 ‘영생’과 ‘영원한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홉스는 영생과 영원한 고통이 펼쳐지는 장소는 하늘이나 지하가 아닌 우리가 거주하는 이 지상임을 <성경>을 통해 설명하고 난 뒤, 영생의 기쁨이자 “구원된다는 말은, 보호를 받는 것, 즉 각각의 해악으로부터 따로따로 보호를 받거나, 모든 악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해악이란 결핍이나 질병, 그리고 죽음 그 자체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라고 정의한다 (『리바이어던』 제38장, 116-143쪽).

왜 홉스는 독자로 하여금 세속적 주권자가 안겨주는 보상과 처벌에서 눈을

둘러 ‘영원함’(eternity)에 대한 논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일까? 홉스는 자신이 아무리 공포에 떨며 이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에 몰두하는 합리적인 인간형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을 넘어 사람들이 상상하는 희망과 두려움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비헤모스』(*Behemoth*)에 대한 입문서를 작성한 홉스는 홉스의 입장에서 “인간의 행동은 아무리 그가 자기 이익에 충실하다고 여겨지더라도 예측 불가능한데, 바로 그가 미래를 예측할 때 이익을 최대한 계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작동하는 여러 비합리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Holmes 1990, xv).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홉스는 설득을 포기하지 않았다. “정치적 주권자의 명령을 따르더라도 영생을 얻는데 지장이 없다면, 마땅히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홉스는 한 가지 단서조항을 붙이는데, “정치적 주권자의 명령에 따르면 영원한 죽음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정신나간 짓”이라는 점이다 (『리바이어던』 제43장, 285쪽). 그런데 2장에서 살펴보았듯 홉스가 『리바이어던』 1부에서 정의했던 바에 따르면, 우리는 영생과 영원한 죽음이 무엇인지도 명확히 알지 못하며, 이를 안겨줄 신에 대한 관념조차 우리에게 부재하다.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바라보며 홉스는 성서 속 괴물인 ‘리바이어던’을 우리 눈앞에 가져다 둔다. 이때 어떠한 심상이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남을지는 알기 어렵다. “주권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은 현실에 기초하지 않는 온전한 상상이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내놓는 합리적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 가정(assumptions) 간 전쟁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가 되었던 미래 (혹은 미래에 대해 사람들이 지니는 관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권력을 갖게 된다” (Holmes 1990, xiv).

V. 나가며: 유토피아와 현실

본고는 홉스가 당대 지적 교류나 학습으로 인해 상상(imagination)이라는 요소가 인간사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정치적 주권자는 자신의 공동체 내에서 이뤄지는 정치적 상상(political imaginary)을 독점해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음을 보이고자 했다. 여기에서 홉스적 주권자에게 제기되었던 과제는 과연 주권자는 이러한 능력을 갖추었는가, 갖추지 못했으면 어떻게 보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홉스는 인간을 자신에게 부여되는 자극 중에서 가장 강력한, 즉 지배적인 것만을 느낀다고 말한다. “우리의 눈, 귀 등의 감각기관은 외부의 물체들로부터 다양한 자극을 받지만, 그 중 가장 지배적인 것만을 감지한다. 즉 햇빛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별빛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리바이어던 제2장, 33쪽)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홉스가 살던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세속화 시대를 살아간다는 우리 시대 역시도- 종교 지도자의 연사는 인간사 전체에 걸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이다. 3장에서는 잉글랜드 내전이라는 정치적 혼란기에 나타난 예언자(prophet)의 역할에 주목하며 이

러한 홉스의 문제의식을 검토해 보고자 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이러한 혼란에서 벗어나고자 혹은 좀 더 일반적인 차원에서 정치적 안정을 가져올 주권자는 어떠한 위상에 서서 어떠한 역할을 해냈어야 했는지에 대한 홉스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모순적이게도 예언자의 상상에 맞설 대상으로 홉스는 성경 속 괴물인 ‘리바이어던’을 내세웠다.¹⁶⁾ 시민들은 예언자가 그려주는 참된 복됨을 뿌리치고 괴물을 닮은 주권자의 공포스러운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을까?

홉스가 들어오던 세상은 그렇게 우호적이지도 낙관적이지도 않다. 비단 그가 상정한 자연상태에서 뿐만 아니라 자연상태를 벗어난 사회상태에서도 그러한 관점은 크게 변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의견과 생활태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세상사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 모두와 변치 않는 시민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들 한다. 세상사란 대부분 명예와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한 영원한 경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생존 경쟁만 벌이는 자연상태보다도 명예, 부, 권력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영원한 경쟁 속에 있는 사회상태는 더 암울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홉스는 희망을 놓치지 않았다. 경쟁을 벗어나 “변치 않는 시민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극히 어려운 일 이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이다 (『리바이어던』 재검토 및 결론, 424쪽).

이러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때 가장 큰 걸림돌로 홉스는 바로 “어리석은 자만”에 빠진 이들을 제시하는데, 그 중 특히나 “자기가 신실하고 덕이 많아서 특별한 계시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문제시한다 (『리바이어던』 제32장, 25-6쪽). 이를 두고 스트라우스는 “저서의 제목이 지시하듯, 홉스의 저서[리바이어던]는 ‘자만(pride)’이라는 정념을 직접적으로 문제시”한다고 주장했다 (Strauss 1952, 55).¹⁷⁾ 홉스에게 이 ‘자만’은 자신이 펼치고자 했던 리바이어던 수립의 기초를 이루는 자연상태를 혼탁하게 만든다. 홉스는 “자연이 인간을 평등하게 만들었다면, 그 평등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비록 자연이 인간을 불평등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등한 조건에서가 아니라면 평화의 상태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평등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자연법을 어기는 ‘자만’에 빠진 사람은 곧 신법을 어기는 것이라 정의한다 (『리바이어던』 제15장, 208쪽).

홉스가 인정하듯 우리는 자연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했는지- 평등하게 만들었는지 불평등하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따라서 ‘자만’에 빠진 사람들을 훈육할 수도, 또 훈육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확신도 구할 수 없다. “사람들의 의견은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고, 또한 사람들의 정념과 이해

16) “홉스에게 있어서 자연법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지도자와 집단은... 교회나 성직자가 아닌 논리학의 모습에 가까”울 수 있지만, “정치가 필요로 하는 지식은 신학이 아니라 논리학”이라는 입장(윤비 2012, 207)은 이러한 홉스의 비유적 요소의 중요성이 간과되었을 때 유지될 수 있어 보인다.

17) 이후 비슷한 관점을 제시하는 연구가 이어져 왔다. 대표적으로 Baumgold(1990), McClure(2014)를 들 수 있다.

관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변하기 쉽”기 때문이다 (『리바이어던』 재검토 및 결론, 423쪽).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정치는 더욱 필요해진다. “우리는 우리와 의견을 달리 하는 이들과 함께 지내며 행동해야하기 때문이다” (Sleat 2013, 44). 아무리 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주권자도 혹은 아무리 완벽한 정치제도라도 이러한 불협화음을 제거할 수 없다. 이처럼 의견충돌과 분쟁이 사라질 수 없다면, (홉스가 바라는) 질서와 안정은 항상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있게 된다. 이러한 정치현실을 인지했던 홉스는 자신의 저작을 통해 모든 문제가 한번에 해결되기를 바랐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심상이 흐려지고 약해”지기를 기다렸던 것은 아닐까 (Philip 2007, 62). 유토피아가 아닌 현실을 바라보던 홉스는 자신이 내세운 “알레고리가 현실이 되는 순간, 상징이 실재가 되는 순간”을 기다렸을 수 있다 (윤비 2010, 40).¹⁸⁾ 그리고 이러한 때가 언제 올지 모르는 ‘리바이어던’은 잠들어 있기보다는 계속해서 보여져야 하며, 이를 관찰하는 신민도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18) 이러한 입장과 반대되는, 즉 『리바이어던』의 유토피아니즘(utopianism)적 성격을 내세운 논의로 Tuck(2004)를 참고해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민혁. 2023. “레오 스트라우스와 쾨팅 스키너의 마키아벨리 ‘시민군’론 해석 고찰”. 『한독사회과학논총』 33권 1호. 111-131.
- 김태진. 2017. “홉스의 정치사상에서 ‘신체’의 문제 : ‘신체’(body)와 ‘인격’(person) 사이의 아포리아”. 『한국정치학회보』 51집 1호. 29-47.
- 안두환. 2021. “케임브리지 학파의 지성사와 역사주의 정치학”. 『한국정치학회보』 55집 1호 2021 (봄). 57-81
- 윤비. 2010. “유럽 여제(Europa Regina): 근대 초 의인화된 유럽의 알레고리와 정치적 레토릭”. 『한국정치학회보』 44집 4호.
- 윤비. 2012. “신화적 정의관의 붕괴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정치사상연구』 18집 1호.
- 이규성·박영란. 2020. “홉스의 근대주의 인간관에 기반한 종교관 연구”. 『신학연구』 77집
- 홉스, 토마스. 진석용 역. 2008. 『리바이어던 1: 교회국가 및 시민국가의 재료와 형태 및 권력』. 파주: 나남.
- 홉스, 토마스. 진석용 역. 2008. 『리바이어던 2: 교회국가 및 시민국가의 재료와 형태 및 권력』. 파주: 나남.
- 홍태영. 2017. “정치학적 탐구에서 ‘역사’와 ‘사상’: 한국 정치철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론”. 『한국정치연구』 26집 1호. 1-26.
- Ahrens Dorf, Peter J. 2000. “The Fear of Death and the Longing for Immortality: Hobbes and Thucydides on Human Nature and the Problem of Anarch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4, no. 3, 579-93.
- Baumgold, Deborah. 1990. “Hobbes’s Political Sensibility: The Menace of Political Ambition”. Mary G. Dietz. *Lawrences*, ed. *Thomas Hobbes and Political Theory*. KS: University Press of Kansas.
- Baumgold, Deborah. 2017. *Three-Text Edition of Thomas Hobbes's Political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jan, Teresa M. 2010. “Teaching the Leviathan: Thomas Hobbes on Education”. *Oxford Review of Education* 36, 5.
- Bejan, Teresa M. 2018. “First Impressions: Hobbes on Religion, Education, and the Metaphor of Imprinting.” Laurens van Apeldoorn and Robin Douglass, eds. *Hobbes on Politics and Relig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urgess, Glenn. 1990. “Contexts for the Writing and Publication of Hobbes's Leviathan”.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11, no. 4.

- Burgess, Glenn. 2004. "Execution of Charles I and English Political Thought". Robert von Friedburg, ed. *Murder and Monarchy: Regicide in European History, 1300-1800*.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Chadwick, Alexandra. 2020. "From soul to mind in Hobbes's *The Elements of Law*". *History of European Ideas*. 46, no. 3, 257-275.
- Collins, Jeffrey R. 2005. *The Allegiance of Thomas Hobb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ooper, Julie E. 2013. *Secular Powers: Humility in Modern Political Though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escartes. 1637. *Discourse on the Method of Rightly Conducting One's Reason and Seeking Truth in the Sciences*.
- Farr, David. 2014. *Major General Thomas Harrison: Millenarianism, Fifth Monarchism, and the English Revolution 1616-1600*. Farnham UK: Ashgate.
- Douglass, Robin. 2014. "The Body Politic 'Is a Fictitious Body': Hobbes on Imagination and Fiction". *Hobbes Studies* 27.
- Dungey, Nicholas. 2008. "Thomas Hobbes's Materialism, Language, and the Possibility of Politics". *The Review of Politics* 70,190-220.
- Goldsmith, M. M. 1966. *Hobbes's Science of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obbes, Thomas. 1840. "Considerations Upon the Reputation, Loyalty, Manners, and Religion of Thomas Hobbes". Sir William Molesworth ed. *The English Works of Thomas Hobbes of Malmesbury*. London: John Bohn.
- Hobbes, Thomas. 1845. "Six Lessons to the Savilian Professors of the Mathematics." Sir William Molesworth ed. *The English Works of Thomas Hobbes of Malmesbury*. vol. VII. London: Longman, Brown, Green, and Longmans.
- Hobbes, Thomas. 2010. Paul Seaward, ed. *Behemoth, or the Long Parliament*. Paul Seawar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oekstra, Kinch. 2004. "Disarming the Prophets: Thomas Hobbes and Predictive Power". *Rivista di Storia Della Filosofia* 1.
- Holmes, Clive. 2006. *Why Was Charles I Executed?* London: Hambledon.
- Holmes, Stephen. 1990. Introduction to *Behemoth, or the Long Parliament*, by Thomas Hobb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ohnston, David. 1986. *The Rhetoric of Leviathan: Thomas Hobbes and the Politics of Cultural Transform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eijenhorst, Cees. 2007. "Sense and Nonsense about Sense: Hobbes and the Aristotelians on Sense Perception and Imagination". Patricia Springborg,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Hobbes's Leviath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loyd, S. A. 1992. *Ideals as Interests in Hobbes's Leviathan: The Power of Mind over Matt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lcolm, Noel. 1996. "A Summary Biography of Hobbes". Tom Sorrell,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Hobb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lcolm, Noel. 2012. *Thomas Hobbes: Leviathan, Volume 1: Editorial Introduction*. Oxford: Clarendon Press.
- McCracken, C. J. 1998. "Knowledge of the Soul". D. Garber and M. Ayers,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Seventeenth-Century Philosophy*. 2 vo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I: 796-832.
- Maclean, I. 2008. "Cardano's eclectic psychology and its critique by Julius Caesar Scaliger". *Vivarium* 46, 392-417.
- Martinich, A.P. 1992. *The Two Gods of Leviathan: Thomas Hobbes on Religion an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Clure, Christopher Scott. 2014. "War, Madness, and Death: The Paradox of Honor in Hobbes's Leviathan." *The Journal of Politics* 76:1,114-25.
- Mori, Gianluca. 2012. "Hobbes, Descartes, and Ideas: A Secret Debate".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50: 197-212.
- Morill, John and Philip Baker. 2001. "Oliver Cromwell, the Regicide, and the Sons of Zeruah". Jason Peacey, ed. *The Regicides and the Execution of Charles I* Basingstoke Hamshire UK: Palgrave.
- Mortimer, Sarah. 2017. "Henry Ireton and the Limits of Radicalism, 1647-9" George Southcombe and Grant Tapsell, eds. *Revolutionary England, c. 1630-1660: Essays for Clive Holmes*. Abingdon UK: Routledge.
- Parkin, Jon. 2010. *Taming the Leviathan: The Reception of the Political and Religious Ideas of Thomas Hobbes in England 1640-1700 (Ideas in Context)*, Reissue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tterson-Tutschka, Monicka. 2015. "Hobbes Smashes Cromwell and the Rump: An Interpretation of Leviathan". *Political Theory* 43, no. 5.
- Philp, Mark. 2007. *Political Conduc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Pocock, John G. A. 1970. "Time, History and Eschatology in the Thought of Thomas Hobbes". J. H. Elliott and H. G. Koenigsberger, eds. *The Diversity of History: Essays in Honour of Sir Herbert Butterfield*, 149

- 98.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Polizzotto, Carolyn. 2016. "Speaking Truth to Power: The Problem of Authority in the Whitehall Debates, 1648-9". *English Historical Review* 131.
- Pomponazzi, P. 1948. On the Immortality of the Soul [1516]. E. Cassirer, et al., eds. *The Renaissance Philosophy of Ma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55-381.
- Porter, H. C. 1970, *Puritanism Tudor England*. Macmillan.
- Ryan, Alan. 1970. *The Philosophy of the Social Sciences*. London: Palgrave Macmillan.
- Schuhmann, Karl. 2004. "Leviathan and De Cive". Tom Sorrell and Luc Foisneau, eds. *Leviathan after 350 Yea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chwartz, Avshalom M. 2020. "The Sleeping Subject: On the Use and Abuse of Imagination in Hobbes's *Leviathan*" *Hobbes Studies* 33: 153-175.
- Simmons, A. 1999. "Jesuit Aristotelian education: the *De anima* Commentaries". J. W. O'Malley, SJ, et al., eds. *The Jesuits: Cultures, Sciences and the Arts 1540-1773*.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522-37.
- Sleat, Matt. 2013. *Liberal Realism: A Realist Theory of Liberal Politic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Sommerville, Johann P. 1996. "English and European Political Ideas in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Revisionism and the Case of Absolutism," *Journal of British Society* 35: 187-188.
- Sorrell, Tom. 2004. "Introduction". Tom Sorrell and Luc Foisneau, eds. *Leviathan after 350 Yea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pitz, Lewis W. 1994. *The Reformation*, 『종교개혁사』. 기독교문서선교회.
- Spragens, Thomas. 1973. *The Politics of Motion*. Lexington: University of Kentucky Press.
- Stauffer, Devin. 2016. "'Of Darkness from Vain Philosophy': Hobbes's Critique of the Classical Tradi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10: 3, 481-494.
- Strauss, Leo. 1952. E. M. Sinclair, trans. *The Political Philosophy of Hobbes: Its Basis and Its Genesi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uck, Richard. 2004. "The Utopianism of Leviathan". Tom Sorell and Luc Foisneau eds. *Leviathan After 350 Years*, 125-38. Oxford: Clarendon

Press.

Tuck, Richard. 2016. *The Sleeping Sovereign: The Invention of Modern Democracy* (The Seeley Lectur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arrender, Jerry. 1957. *The Political Philosophy of Hobbes: His Theory of Oblig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